

전주시의회 의원 5명, 5분 발언 잇따라

이남숙 의원, 적극 소통 통한 드림랜드 현대화사업 추진
 김원주 의원, 주거 취약가구 대상 더위 대책마련 촉구
 장병익 의원, UAM 정책 마련·인프라 구축 제안
 송영진 의원, 공영주차장 무료회차 시간 확대 제안
 양영환 의원, 전주시 오픈국제태권도대회 유치 촉구

지난 24일 전주 시의회 제410회 임시회 2차 본회의 의에서 5명의 의원이 5분 자유발언에 나섰다. 이남숙(동서학, 서서학, 평화1·2동) 의원은 “전주드림랜드 현대화사업에 대한 타당성 조사 등 최종보고에 따르면 3,400억 원 규모가 되는 사업의 부지 적절성에 대한 어떤 근거 자료도 확인할 수 없었으며, 검토 결과 현 사업 부지가 가장 적절하다는 ‘밀’ 뿐인 통보였다”고 지적했다. 또 “여러 관계 부서 간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아 제대로 추진되고 있지 않다”라며 주민 및



부서 간 소통을 통한 신속한 사업 추진을 촉구했다. 김원주(중앙, 풍남, 노송, 인후3동) 의원은 주거 취약 가구에 대한 더위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저소득층 시민들의 안전한 여름나기를 위해서는 전주시가 이들이 사는 공간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한다”며 “노후 주거지역 거주자 등 취약

다. 또한 “전주시는 한옥마을과 새만금을 연결하는 관광자원, 전북 시군과 지역거점공공병원을 연결하는 응급구조 서비스 체계 등 UAM 상용화 관련 전수형 실증모델 구축과 수직이착륙비행장(버티포트) 입지 마련, 기존 교통망과 UAM을 연계하는 환승 인프라를 선제적으로 준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송영진(초촌, 여의, 혁신동) 의원은 시민들의 생활편의 증진과 경제활성화 위한 공영주차장 무료회차 시간 확대를 제안했다. 송 의원은 “현재 노외 공영주차장의 경우 무료회차 시간이 주·정차 용도로도 활용이 어렵다”며 “무료회차 시간을 10분에서 20분으로 확대함으로써 시민들의 생활편의와 경제 활성화를 도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양영환(동서학, 서서학, 평화1·2동) 의원은 전주시 오픈국제태권도대회 유치를 촉구했다. 양 의원은 “전주는 태권도 중추도시지만 오픈국제태권도대회 유치 관련 예산 편성도 되어있지 않은 데다 타 지자체에서 대회가 개최되면서 위상마저 빼앗기고 있다”며 “대회 유치를 위한 예산 확보 등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달라”고 주장했다. /김옥기 기자



전주시 음식관광 창조타운 조성사업에 대한 설계 공모 심사를 거쳐 이길환 대표의 (주)길종합건축사사무소(이엔지)가 당선작으로 선정됐다.

전주 음식관광 창조타운 청사진 마련

전주시는 지난 23일 음식관광 창조타운 조성사업에 대한 설계 공모 심사를 거쳐 이길환 대표의 (주)길종합건축사사무소(이엔지)가 당선작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총 5개 팀이 참가한 이번 설계 공모 심사에서 시는 건축 분야 교수와 건축사 등 외부전문위원 9명으로 구성된 설계공모심사위원회를 통해 접수된 작품에 대한 평가와 심의·투표로 당선 작품을 선정했다. 당선사인 (주)길종합건축사사무소(이엔지)는 개방적인 평면 및 테라스 설계로 접근성이 양호하고 내외부공간의 연계가 우수하다는 점에서 이용객의 편의에 부합하는 공간계획 및 평면계획을 제시해 심사위원들로부터 가장 높은 표를 받았다. 당선작을 출품한 (주)길종합건축사사무소(이엔지)에는 설계권이 부여돼 향후 음식관광 창조타운의 구체적인 청사진을 마련하게 된다. 이와 관련 문화체육관광부의 서부내

“자립준비청년 성공적 자립 응원합니다”

전주시-전북은행, 지원 위한 업무협약 체결

전주시가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을 돕기 위해 전북은행(은행장 백종일)과 손을 맞잡았다. 시와 전북은행은 지난 24일 전주시 시장실에서 우범기 전주시장과 백종일 전북은행장 등 양 기관 관계자들이 참



전주시와 전북은행은 지난 24일 시장실에서 우범기 전주시장과 백종일 전북은행장 등 양 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자립준비청년의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석한 가운데 자립준비청년의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앞으로 △전주시 자립준비청년의 성공적인 자립을 지원하는 사업 △협약기관 등 반성장을 위한 자립준비청년 대상 복지사업 △기타 필요한 사업 등에 대해 상호 협력기로 뜻을 모았다. 특히 전북은행은 올해 전주시 자립준비청년을 위한 지속적인 후원 및 지원 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백종일 전북은행장은 이날 “삶의 전반에서 고통을 겪고 있는 자립준비청년들의 성공적인 자립을 응원하기 위해 전주시와 협력해 자립준비청년들을 꾸준히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우범기 전주시장은 “전북은행에서 전주시 자립준비청년들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경제적 지원을 약속해주신 것에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린다”며 “앞으로도 이 같은 우수사례가 더욱 확산 되도록 민관협력 강화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김옥기 기자



좋은이웃들 봉사자 교육

전주시사회복지협의회(회장 김형석)는 지난 23일 “2024년 좋은이웃들 봉사자교육 및 간담회”를 실시했다. 이날 교육에는 권역별 좋은이웃들 참여 봉사자 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새롭게 위촉된 신규 봉사자에 대한 위촉과 기본 교육 등이 진행됐다. 위촉된 봉사자들은 앞으로 전주시 복지사각지대 발굴과 지역자원 연계·협력에 바탕으로 한 복지사각지대 없는 전주를 만드는 데 앞장서게 된다. 김형석 회장은 “전주시사회복지협의회 좋은이웃들 봉사자들을 통해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취약계층을 찾아내 복지 서비스를 강화하고 있다. 이번 교육을 통해 좋은이웃들 봉사자들의 적극적인 활동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옥기 기자

‘전주 온가족 시민장터’ 즐거움·추억 선사

전주시는 지난 25일 전주시청 앞 노송광장에서 ‘제2회 전주 온가족 시민장터’를 개최했다. 오후 1시부터 약 4시간 동안 진행된 이날 행사에는 가정의 달 5월의 마지막 주말을 가족·친구들과 함께 즐기 위해 행사장을 찾은 방문객들이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즐겼다. 이날 시민장터에서는 20개의 공동체가 참여한 ‘판매장터’가 마련돼 방문객들에게 각종 수공예품과 장신구 등 생활용품 등을 구매할 기회를 제공했다. 또한 13개 공동체가 참여한 체험부스에서는 아크릴 무드등 만들기 등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이 진행됐다. 특히 이날 시민장터에서는 어린이 방수댄스와 어린이 바이올린 공연, 비눗방울 공연이 펼쳐졌으며, 총 24팀이 참여한 팀 대항 추리게임 등 총 3개의 게임 이벤트도 진행돼 참여 가족을 비롯한 방문객에게 특별한 추억을 선사했다. 김혜숙 전주시 사회적경제과장은 “전주 온가족 시민장터는 공동체들이 참여해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소통의 장이 될 뿐 아니라 시민과 관람객들 모두의 축제장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면서 “가정의 달 5월에 열린 제2회 온가족 시민장터가 방문객들께 즐거움과 추억을 드릴 수 있어 기쁘다”고 말했다. 한편 올해 전주 온가족 시민장터는 총 4차례 개최될 예정으로, 제3회 전주 온가족 시민장터는 오는 6월 22일 노송광장에서 진행된다. /김옥기 기자

제12회 무주산골영화제

Muju Film Festival 2024

2024. 6. 5. - 6. 9.

www.mjff.or.kr

주최 무주산골영화제 조직위원회

주관 무주산골영화제 집행위원회, (재)무주산골문화재단

후원 전북북부지도

자연학습마을

전주 MDC

한글서체문화재단

무주교육지원청

협찬

Sozial

Torriden

비타그루

MARITA

HIBROW

전우건설(주)